

김남훈

변호사

민사집행법 특강

- 출제비중이 높아지는 민사집행법의 중요쟁점에 대한 요점정리
- 민사법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필수쟁점의 완벽정리
-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민사집행법의 핵심쟁점에 대한 압축정리

■ 강의일정 2020년 9/17(목) ~ 9/24(목), 오후, 월~금 강의, 총 6 회
오후 2:30 ~ 6:00
※시간대 변경유의

■ 교 재 Practice 민사집행법(저자, 2020년 개정판, 근간)

■ 강의특징 I. 변호사시험에서 민사집행법의 중요성

민사집행법은 민사실체법과 민사절차법을 아우르는 민사법의 핵심이 되는 과목입니다. 즉 민법 및 상법 등의 민사실체법이 민사소송법이라는 민사절차법을 통하여 민사집행법에 도달한 후에 민사집행법을 통하여 궁극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을 평가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민사집행법을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는 판례와 쟁점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사집행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택형에서는 배당의 순서, 가치분과 가압류의 효력,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청구이의의 소와 제3자이의의 소 등의 쟁점을 묻는 지문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사례형에서는 추심명령, 전부명령(채권양도와와의 경합), 청구이의의 소 등의 법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 강의특징

기록형에서는 제4회 시험에서는 ‘민사집행법 제81조의 직권보존등기’에 관한 쟁점과, ‘부동산 등기법 제57조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에 관한 쟁점(이 쟁점은 제1회 시험에서도 출제)이 출제되었습니다. 제5회 시험에서는 ‘추심명령’의 쟁점이 출제되었고, ‘보전처분’에 관한 법리를 이해하여야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제6회 시험에서는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압류명령은 유효’라는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제7회 시험에서는 ‘처분금지처분의 취소’에 관한 쟁점과 ‘전부명령’에 관한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제8회 시험에서는 ‘전부명령’이 출제되었습니다. 제9회 시험에서는 ‘추심금청구소송’의 쟁점 중 난이도가 높은 압류 경합 시 추심명령은 유효라는 쟁점과 집행채권에 대한 항변사유의 쟁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즉 민사집행법을 학습하게 되면 민사법의 법리가 체계적으로 보이게 되고,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민사집행법을 모르면, 민사법의 법리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민사집행법을 병행하여 학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하면 민사법 실력을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II.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교재의 특징

본 교재는 효율적으로 변호사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의 모든 조문을 수록하였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민사집행규칙과 민사소송법도 인용하였습니다. 판례는 2020년 8월 판례공보까지 정리하였고, 중요판례는 판결이유까지 서술하여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이므로, 특정 쟁점에 대한 부분만을 정리하는 것으로는 정확한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에 대한 현금화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과서의 형식을 갖추어 그 쟁점이 민사집행법에서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주에 현재까지 변호사시험에 기출된 선택형 지문들을 정리하여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민사집행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될 것입니다.